

“손녀 방에 악마가”



▲ 사진에 찍힌 악마의 모습. 사진=트위터(RadioCity967)

미국에서 한 40대 할머니가 손녀 방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악마 같이 생긴 누군가가 찍혔다고 주장하며 초자연 현상에 관한 경험 등을 공유하는 한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41세 할머니 토리 매켄지는 지난 3일 초자연 현상에 관한 경험 등을 공유하는 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보안 카메라 사진 몇 장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에는 손녀가 자고 있는 유아용 침대 옆에 누군가가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매켄지는 “사진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 난 다시 한 번 영상을 돌려 봤다.”면서 “내가 처음에 본 것은 머리에 달린 뿔이었다.”고 말했다.

매켄지는 손녀의 방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로 “지난 1월 큰아들 라이언이 내게 두살배기 딸 엠버가 한밤 중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손녀 방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 설치 4일 뒤 카메라 앱을 확인하다가 새벽 2시 59분쯤 녹화된 영상에서 잠든 엠버와 생후 7개월 된 손자 마이클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머리에 뿔이 있고 손톱이 긴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매켄지는 자신이 공유한 이미지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단지 가짜를 지키고 싶을 뿐이고 이미지를 조작할 만한 기술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처음에 아이들을 살펴보는 가족 중 한 명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모두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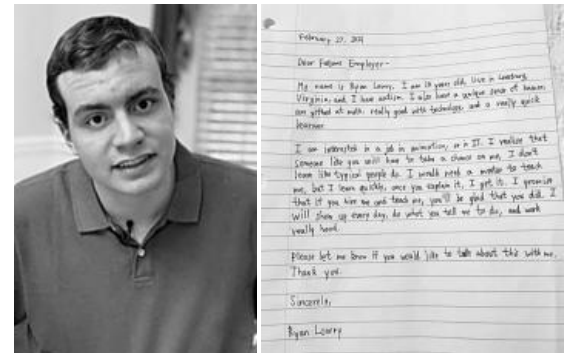
자폐 학생이 미래 고용주에게 띄운 편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폐 학생이 미래의 고용주에게 띄운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지난 16일 CNN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 사는 라이언 로리(20)는 지난달 27일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링크드인(Linkedin)에 자필 편지 한 장을 게재했다. 미래의 고용주에게 쓴 편지에서 로리는 “나는 애니메이션이나 IT 분야에 관심이 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나는 영리하지만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다. 그래도 가르쳐주면 빨리 배운다. 나를 고용하고 일을 가르쳐준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약속한다. 매일 출근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기회를 달라.” 호소했다.

로리의 편지가 공개되자 반응은 뜨거웠다.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한꺼번에 쏟아진 관심에 보안을 우려한 링크드인 측이 계정을 일시 정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자리 제안도 쇄도했다. 델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 채용 프로그램을



▲ 로리와 그가 게재한 편지. 사진=wjla.com

보유한 대기업 전화가 잇따랐다. 신경다양성은 자폐, ADHD, 난독증 등 다양한 발달장애를 정상 범주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발달장애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졸업 전까지 한시 고용된 카페에서 일하며 구직 활동 중인 로리는 포트폴리오 작업으로 분주하다. 졸업 후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자신의 편지가 화제를 모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로리는 “네가 인터넷을 훑었다.”는 아버지의 말에 “안다. 내 편지가 입소문이 났더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임의 이유가 밝혀진 여성 혹은 남성

결혼 후 불임으로 마음고생 하던 중국 여성이 그 원인을 알고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10일 중국 저장대학교 병원에는 25살의 한 여성이 발목을 다쳐 내원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이 여성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가 진료를 한 결과 이 여성에게 월경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에게는 자궁과 난소가 없었다. 그 원인을 분석한 병원 측은 이 여성이 여성도, 남성도 아닌 ‘간성’(intersex)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료진은 “염색체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의 핵형은 46XY로 나타났다. 여성의 핵형은 46XX다.”고 설명했다. 외성기만 놓고 보면 여성이나, 자궁과 난소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 한 기혼 여성이 스와이어 증후군으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China Daily) 캡처

그렇다고 남성 생식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인간은 46개(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중 X와 Y 염색체가 성을 결정한다. 여성은 46XX, 남성은 46XY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염색체가 XX 조합인데도 남성, XY 조합인데도 여성인 경우가 있다. 신체 구조상으로는 여성 생식기를 가졌으나 유전

적으로는 남성 염색체를 지니는 현상을 가리켜 ‘스와이어 증후군’이라 부른다. 약 8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난다.

이 여성을 치료했던 병원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물리적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성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이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탓에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